

| 제21대 대선 이재명 후보 직속<br>모두의나라위원회 |       | 보도자료 |                                 |
|-------------------------------|-------|------|---------------------------------|
| 보도일시                          | 배포 즉시 | 배포일시 | 2025년 5월 24일                    |
| 위원장                           | 고영인   | 담당자  | 상근실무자 이진옥 팀장<br>(010-3906-2561) |

## 이재명 후보직속 ‘모두의나라위원회’ 수도권 조직 역량 결집!

- 오늘 오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에서 주요 인사 임명장 수여.
- 행사 직후 수원 못골시장 유세 전개
- “모두의나라의 꿈이 싹튼 경기도 진짜 대한민국 만들 중심지”

제21대 대통령 선거 일정이 후반으로 접어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직속 모두의나라위원회(위원장 고영인, 이하 위원회)가 경기 지역으로 향했다. 위원회는 오늘(24일)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119, 청궁빌딩 3층)에서 경기권역의 주요 위원을 위촉하고 임명장 수여식도 함께 진행했다. 경기도는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고향이자 이 후보와 경선에서 겨뤘던 김동연 지사가 도정을 수행하고 있는 곳으로 이번 선거기간 가장 주목받는 지역으로 꼽힌다.

이날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정무 1실장을 맡고 있는 김영진 경기공동상임선대위원장(3선, 경기도 수원시 병)이 참석했다. 행사장에는 임명장 수여 대상자 등 100여 명이 운집해 열기를 더했다.

‘모두의나라위원회’는 지난 4월 치러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이재명 후보와 겨뤘던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슬로건인 ‘모두의 나라, 내 삶의 선진국’에서 명칭을 따왔다. 김 지사의 대선 경선 캠프를 총괄했던 고영인 전 경제부지사가 ‘모두의나라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위원회를 이끌고 있다. 경선 캠프 복지, 여성 등 정책분야를 담당한 정춘숙 전 의원(20~21대 국회의원, 경기도 용인시 병)은 수석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돌봄경제위원회 위원장도 함께 맡았다.

고영인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정치의 극단적 진영화, 경제 불평등, 사회적 양극화로 인한 갈등과 분열을 넘어선 모두의 나라는 앞으로 만들 진짜 대한민국의 씨앗”이라고 말한 후 “경기도는 지난 경선 기간 동안 함께 했던 분들이 많다. 모두의나라위원회는 이 분들의 마음을 모으고 과제를 나누는 통로다. 우리사회의 통합을 위한 비전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제안했다.

김영진 정부1실장은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대선이 치러지는 것 자체가 위기다. 회복과 도약으로 전진하지 않으면 위기의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이 없다. 경선에 함께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가 되었다. 통합과 연대의 정신을 실천하며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민주주의 정상화, 새로운 성장의 길을 만들어 달라” 고 격려의 뜻을 전했다.

정춘숙 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은 “모두의나라위원회 활동은 민주당의 뜻을 하나로 모으는 과정이다. 진짜 대한민국이 모두의나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각오를 밝혔다. 김용진 부위원장은 “경선이후 통합은 어려운 과제다. 여러 세력의 연대는 필수다. 모두의나라위원회가 이 름값을 하도록하겠다” 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퍼포먼스로 갈등과 분열 극복, 통합과 비전 정치 실천의 의지를 다지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행사 종료 직후 고영인 위원장은 수원 못골시장 일대의 지역유세에 나서 “대한민국의 축소판 경기도는 모두의나라의 꿈이 싹튼 곳이다.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 중심지가 경기도다.” 라며 “계엄으로 초래된 위기, 탄핵으로 멈춰세웠다. 4기 민주정부에 힘을 모아주시면 새로운 대한민국이 시작된다” 고 호소했다. 유세를 마친 후 고 위원장은 못골시장 소상공인과 인사를 나누며 민생경제 상황을 점검했다. (끝)

-행사사진 별첨-





